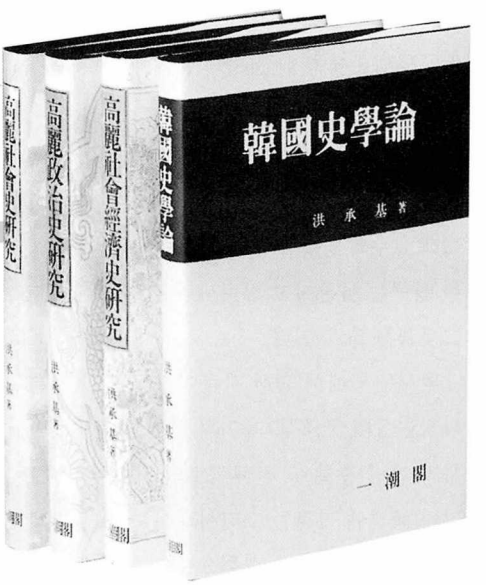
전체사 지향하는 실증주의적 고려사 연구서

《고려사회사연구》《고려사회경제사연구》《고려정치사연구》《한국사학론》

위은숙 |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홍승기 교수가 펴낸 세 권의 책은 고려시대의 신분제도, 농업, 지배세력의 변천에 대한 연구서다. 이 책들과 함께 펴낸《한국사학론》에서는 실증사학과 민족주의사학, 도덕사관 그리고 구미 한국역사연구자들의 사관 등을 정리하고 비판한다. 또 고려시대 연구사를 정리하고 역사연구방법론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홍교수의 연구서들은 실증사학에 입각해 고려시대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뤘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전체상 제시보다는 개별 주제에 머무르고 있어 아쉬움도 있다.

《고려사회사연구》
홍순기 지음
일조각/A5신/276면/14,000원

《고려정치사연구》
일조각/A5신/350면/18,000원

《고려사회경제사연구》
일조각/A5신/244면/12,000원

《한국사학론》
일조각/A5신/298면/15,000원

최근 홍승기 교수가 그간의 연구성과를 모아 네권의 책을 출간했다. 지은이는 정력적인 연구로 항상 후학들에게 귀감이 돼왔는데, 그간의 연구물이 이렇게 책으로 묶이고 보니, 새삼 그의 학문적 관심사가 얼마나 폭넓은지 느낄 수 있었다.

양적으로도 풍부한 연구성과를 통해 한국 중세사학계의 발전에 이바지했을 뿐 아니라, 정치사 · 사회사 · 경제사에서 유교(무신집권기 유교와 민란) · 불교(관음신앙과 신라사회) · 풍수지리사상(고려초기 정치와 풍수지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구를 통해 편벽되게 역사를 보지 않고 사회구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 지은이의 노력은 높이 평가돼야 할 것이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사론에 관한 글들을 집중적으로 발표해 30여년에 걸친 연구자로서의 역사인식을 정리해내고 있다. 특히 '전체사' 의 입장을 강조한 지은이의 사론이야말로 1970년대 이래 지금까지 지속돼온 그의 학문적 고민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다각도로 고려시대사 접근해

《고려사회사연구》는 주로 고려시대 신분제에 대한 연구로 역사에서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그 유기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책에는 고려시대의 신분계층과 신분구조의 사회적 기능, 사서제와 양천제의 제도적 운영과 그 사회적 · 정치적 의미, 특정신분계층으로서의 잡류와 공장의 성격, 사회변동과 관련된 신분이동 등을 연구한 성과물이 실려 있다.

《고려사회경제사연구》는 고려시대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농업이었으므로 고려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그 생산수단인 토지와 경작자인 농민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시각에 따라 이뤄진 연구들이다. 내용은 공음전시제도의 시원으로서 의미가 있는 훈전과 녹읍, 수조지로서의 사전, 토지상속과 고려말의 토지겸병에 대한 토지제도사 연구와 국가와 농민의 관계, 전호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것이다. 국가가 자영농을 보호, 육성해 정치 사회적 안정을 도모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전기사회에서는 안정됐으나 후기에 자영농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농민의 반란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경제사연구지만 정치, 사회사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했다.

《고려정치사연구》에서는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 후삼국이 통일될 때까지의 정치사와 통일의 역사적 의의, 그리고 고려초기 정치와 풍수지리와의 관련성, 사심관과 향리제도를 통해 고려시대 중앙과 지방의 지배관계와 그 유기적 연관성을 살핀다. 또한 군제로서 중앙군에 대한 연구와 그간 논쟁이 되고 있는 고려병제사에 대해 군반씨족제설을 주장하는 이기백 교수의 설을 옹호하는 입장의 글이 실려 있다. 마지막 부분으로 한국정치사의 시기구분에 대한 연구도 시대구분론에 근거해 이기백 교수가 정립한 지배세력의 변천론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정리하고 있다.

전체상 제시보다는 개별주제에 머물러 아쉬워

《한국사학론》은 주로 1990년대 이후 씌어진 글들로 한국근대역사학계의 연구경향들 가운데서도 실증사학과 민족주의사학, 도덕사관,

그리고 구미에서 활동하는 한국역사연구자들의 사관 등을 정리하고 비판하는 작업들과, 고려시대 연구사에 대한 정리와 문제제기, 역사연구방법론에 대한 저자의 문제제기 등을 담았다.

지은이의 고려시대사 연구는, 그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연구주제나 문제의식에서 이기백 교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신분제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정치사나 사론 등에서도 그것을 엿볼 수 있다.

역사연구에서 특히 지은이가 강조한 것은 사회현상의 구조적, 유기적 관련성이며 개별사가 아닌 총괄사, 전체사로의 지향이다. 그러나 세권에 이르는 고려시대사 연구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사상적으로 다각도에서 접근함에도, 그 연구주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고려시대 전체상이 분명하게 제시됐다기보다는 여전히 개별주제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것은 그의 사론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지은이가 의식적으로 벗어나고자 했지만 그의 학문은 필자가 보기에는 실증사학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는 실증사학을 20세기 한국근대역사학계에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학풍으로 보고 있다. 비록 고려시대사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실증사학에서 1960년대의 제도사학으로 한국근대역사학계의 중심 계보를 잡고 있다. 비록 실증사학에 대해, 지나치게 개별적 사실에 집착하고 역사의 전체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정치사 중심으로 연구해 한국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나 원리, 법칙을 찾는 일에 소홀했다고 비판하고는 있으나, 실증사학자들의 학문적 객관성이야말로 오늘날의 시점에서도 여전히 그 권위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 지은이의 생각이다.

따라서 한국근대역사학계에서 큰 영향을 미친 민족주의사학이나 유물사관에 대해서는 비판 일변도며, 그것의 발전적 계승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역사가의 주관을 강조하는 도덕사관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판적이다. 1960년대 이기백의 사회중시 역사에서 1970, 80년대의 민족사학과 민중사학이 나왔다고도 하며, 앞으로는 인식중시의 역사로 가야 한다는 당위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민족사학이나 민중사학은 그에게 비판의 대상에 불과하다.

"실증사학을 중심으로 한국근대역사학계의 계보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다. 사료의 엄밀한 고증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연구할 것을 주문하는 실증사학이 방법론적으로 역사학 연구에 끼친 영향이 물론 적지 않다고 하나 실증사학에 대한 그간의 비판 역시 타당한 것이다."

지은이는 또한 서구적 시각에서 한국역사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 지극히 비판적이다. 이것은 국내학계는 물론 외국의 한국사연구자들이 보여주는 역사인식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다.

이런 지은이의 주장은 특히 최근의 탈근대주의 역사인식을 수용해 좀더 강조되고 있다. 근대성을 서구우월주의로 해석하고, 유물사관이나 민족주의사학에 대한 비판 역시 서구적 인식으로 한국사를 재단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유물사관이나 민족주의사관이 서구적 역사인식에서 기인한 바 크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지금 보면 한계 또한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사관이 20세기 한국근대역사학에서 큰 파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의 보편성과 현재성, 실천성 때문이었다. 지금 시점에서 비판할 것은 당연히 비판해야 하나 20세기의 계급이나 민족문제의 인식을 단순히 서구중심사관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닐까 한다.

사회현상의 구조적 · 유기적 관련성 해명해야

실증사학을 중심으로 한국근대역사학계의 계보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학계(물론 여기에도 이견이 없지 않으나)의 일반적인 시각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다. 사료의 엄밀한 고증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연구할 것을 주문하는 실증사학이 방법론적으로 역사학 연구에 끼친 영향이 물론 적지 않다고 하나 실증사학에 대한 그간의 비판 역시 타당한 것이다.

지은이가 강조하듯 서구우월적 시각이 아니라 비서구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역사의 분석틀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모든 역사연구자의 몫이다.

지은이는 '이기백 사학' 의 충실한 계승자임을 자임하고 있다. 지배세력의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를 보고 시대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배세력의 변화라는 것도 거대담론에 속한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계승과 발전은 바로 '권력' 과 '지배' 그리고 그에 기초한 '계급' 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깊이 있게 천착해나가는 것이 아닐까.

어떤 이론을 도입하든 사회현상의 구조적, 유기적 관련성을 해명해 고려시대의 전체상을 분명히 하는 것은 이제 홍교수 자신의 학문을 완성하기 위한, 그리고 후학들과 학계를 위한 과제다.

홍교수의 오랜 학문적 고민이 담긴 노작을 아직 미숙한 후학이 평하는 것은 외람된 일일지도 모르겠다. 혹 오독이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몫이다. ■

위은숙 교수는 부산대 대학원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고려후기 농업경제연구》를 펴냈다.

다음은 지은이가 실증사학을 평가한 부분이다.

"실증사학자들로서는 역사연구를 제대로 하여 한국사학을 근대역사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실증적 연구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입장은, 주로 유물사관론자들에 의하여 흔들리는 한국사학에 대한 위기감의 표출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는 한국사학을 근대역사학으로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